

모음 약화 현상의 세분화*

이 성 민
(한국외국어대학교)

1. 서론

모음 약화란 강세 상관 언어에서 모음 음소가 강세를 받지 않을 때 중화되는 현상을 말하며 이 때 위치와 관계없이 모든 무강세 모음이 하나의 음으로 중화되는 모음 약화 유형과 위치에 따라 서로 다른 음으로 중화될 수 있는 모음 약화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러시아어에서는 /a, e, i, o, u/의 5모음 음소가 강세를 받지 않을 때 /a/, /o/ 모음은 [a]나 [ɔ]로, /e/ 모음은 [i]로 중화된다.¹⁾ 이러한 모음 약화 현상은 표준 러시아어가 확립된 이래 러시아어의 안정된 발음 규칙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으며, 따라서 러시아어에서 5개의 모음 음소는 강세위치에서는 변화 없이 발음되지만, 무강세 위치에서는 발음되는 모음의 수가 3개로 감소된다.²⁾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 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9-32A-A00175)

- 1) 경모음 /a/는 연자음 /č/, /šč/ 뒤에서 연모음 [i]로 중화된다. 이것은 선행 자음의 연음성에 의한 결과이며, 러시아어에서는 연자음과 경모음이 결합할 수 없기 때문이다.
- 2) 무강세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 음소의 수는 3개이지만 실제로는 변이음 [ɔ]를

그러나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무강세 음절에서 모음 약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차용어의 발생은 러시아어 언어 현상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음운부와 형태부에서의 그 영향은 두드러진다. 따라서 러시아어의 전통적인 발음 규범이 파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발음 규범의 파괴는 무강세 위치에서 발음될 수 있는 모음 수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러시아어 규범에서는 단순한 예외로 간주되었던 모음 약화 규칙의 위반이 이제는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 모음 약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3-5 음소 체계³⁾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현대 러시아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약화의 미적용은 아직까지도 단순한 예외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대 러시아어 모음 약화 규칙의 파괴는 자음 발음 규칙의 단순화에 대한 그 보완적 분화로 볼 수 있다. 즉, 구개음화나 연자음 동화와 같은 자음 규칙의 파괴로 인한 자음 발음의 단순화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음 발음 규칙의 분절음 형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어 모음 약화가 단순히 강세의 유무와 강세 모음과의 거리에 의한 모음만의 발음 규칙이라는 설명에서 벗어나⁴⁾, 이웃 자음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모음의 발음 양상을 다루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2절에서 표준 러시아어와 현대 러시아어⁵⁾의 모

포함하여 [a, i, u, ə] 4개의 음이 발음된다. 또한 변이음 [y]를 음소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모음 음소의 수는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5 모음 음소 체계를 따른다.

- 3) 3-5 음소 체계란 무강세 위치에서는 3개의 음소가, 강세 위치에서는 5개의 모음 음소가 발음된다는 것이다.
- 4) 각주 1에 설명된 것처럼, 표준 러시아어의 일부 경우에도 자음과의 상관관계에 의해 모음 약화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5) Белошапкова(1989: 10)에 의하면 ‘현대 러시아어’란 두 가지로 정의된다. 즉, 첫째는 푸시킨 이후 현재까지의 러시아어이고, 둘째는 20세기 중반 이후의 러시

음 약화 규범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그 후 3절에서는 표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분석과 함께 현대 러시아어에서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는 모음 약화의 변동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4절에서는 러시아어의 전통적인 모음 약화 현상과 함께 현대 러시아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약화 현상의 미적용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이론적 분석을 시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대 러시아어의 모음 발음 규칙을 재설정하고, 다시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전체 단어의 발음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어의 전반적인 발음 규범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2. 표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러시아어의 5개 모음 음소는 강세가 주어질 때에는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고 발음되지만 강세가 주어지지 않으면 질적, 양적 약화를 일으킨다. 이 중에서 모음 /i/와 /u/는 음절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길이 면에서의 변화만 야기하는 양적 변화를 겪는 반면⁶⁾, /a/, /o/, /e/는 길이와 성질이 모두 변화하는 양적, 질적 약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모음 약화는 강세 모음과의 거리 정도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어어이다. 많은 문헌들에서 ‘현대 러시아어’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푸쉬킨 이후 20세기 중반까지의 러시아어를 표준 러시아어(Literary Russian)로, 현재 능동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어를 현대 러시아어(Contemporary Russian)라 칭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이 표준어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음 규범과 다른 유형으로 나타나는 모음 약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규칙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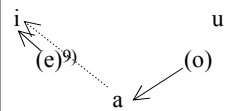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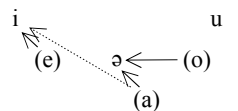
- 6) 예를 들어 Iosad(2012)와 같은 최근의 연구에서는 음성적 실험을 바탕으로 모음 /i/와 /u/도 현저한 중설화를 일으켜 각각 [i̠]와 [u̠]로 발음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이들 모음들도 중설화라는 질적 변화를 겪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 (1) a. абажур [äbäžür] ‘램프의 갓’ ананас [änänäs] ‘파인애플’
 огород [ägärot] ‘야채밭’ оборот [äbärot] ‘회전’
 веснá [v’ısná] ‘봄’ медведь [m’ıdv’et’] ‘곰’
 b. таракан [täräkän] ‘바퀴벌레’ комната [kómnətə] ‘방’
 молоко [mäläkó] ‘우유’ колокол [kóläkəl] ‘중’

(1a)에서 강세 바로 앞 음절과 어두의 모음 /a/는 [ä]로 발음됨으로써 길이가 짧아지는 양적 변화만을 겪는다. 그러나 동일한 위치의 모음 /o/는 모음의 길이와 성질이 변화하는 양적, 질적 변화를 겪으며 [ä]로 중화된다. 또한 весна의 강세 바로 앞 음절의 /e/ 역시 양적, 질적 약화를 겪어 [ɪ]로 발음된다. (1b)는 강세 앞 두 번째 음절과 강세 뒤 음절들에서의 모음 약화를 보여준다. таракан의 첫 번째 /a/와 молоко의 첫 번째 /o/는 질적, 양적 약화를 일으켜 [ə]로 발음된다. 그리고 колокол과 комната의 강세 뒤 음절들의 모음 /o/와 /a/는 모두 [ə]로 발음되는 변화를 겪는다.⁷⁾

전통적으로 현대 표준 러시아어는 3-5 음소 체계를 갖는 것으로 설명된다. 즉, 5개의 모음 음소가 강세 바로 앞 음절이나 절대 어두 위치에 오게 되면 /a, i, u/ 세 개의 모음으로 약화되고, 그 밖의 무강세 위치에서는 /ə, i, u/의 3모음 체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7) 러시아어 발음 규칙을 다루는 전통적인 분석에서는 (1a)와 같이 강세 바로 앞 음절이나 어두 음절에서 발생하는 모음 약화를 1차 약화(Degree 1 Reduction), 그 외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모음 약화를 2차 약화(Degree 2 Reduction)로 칭한다. 또한 Crosswhite(2000, 2001) 등과 같이 음운 이론에 의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1차 약화를 중간 약화(Moderated Reduction)로, 2차 약화를 극단 약화(Extreme Reduction)으로 표현한다. 본 논문에서는 필요한 경우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1차 약화, 2차 약화로 구분한다.

(2)	강세 음절	1차 약화 ⁸⁾	2차 약화
	i u e o a		

러시아어 모음은 (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강세 음절에서 [a, e, i, o, u]가 모두 발음될 수 있다. 그러나 강세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a, i, u] 그리고 [ə]로만 발음될 뿐 중위 모음 [o, e]는 발음되지 않는다.¹⁰⁾

그러나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이러한 3-5음소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 이것은 주로 차용어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무강세 위치에서 모음 /o/와 /e/가 약화를 일으키지 않고 발음된다.

- (3) a. радио [rad'io] '라디오' пóнчо [pónčö] '판초'
 боá [bóa] '보아뱀' какáo [kákao] '카카오'
- b. компьóтер [kámp'júter] '컴퓨터' бутербрóд [büterbrót] '샌드위치'
 бизнесмен [b'iznesmén] '비즈니스맨' мéнеджер [m'énedžyɪ] '매니저'

8)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는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어 오고 있으며, 크게 음운적 관점과 음성-음운적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음운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두 부류의 모음약화가 질적으로 서로 다른 현상이므로 서로 다른 단계에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음성-음운적 관점에서는 1차 약화는 모음의 성질이 바뀌는 음운적 약화인 반면, 2차 약화는 음성적 변이형이므로 하나의 단계에서 분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9) 표 (2)에서 괄호 안의 모음 음소는 해당 위치에서 발음되지 않는 모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실선 화살표는 모음 약화 시 발음의 변화를 나타내며 점선 화살표는 연자음 뒤와 같은 일부 제한된 환경에서의 모음 약화를 나타낸다.

10) 러시아어의 이러한 음운 현상은 'akanie'와 'ikanie'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akanie'는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 /o/와 /a/는 [a]로 발음된다'는 것이고, 'ikanie'는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 /e/는 [i]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akanie' 현상은 표준 러시아어가 정립된 시기부터 러시아어의 발음 규범이었지만, 'ikanie'는 19세기에 정착된 발음 규칙으로 그 이전에는 'ikanie'가 아닌 'ekanie'가 표준 발음 규범이었다.

(3)에는 모음 약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차용어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러시아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즉 (3a)의 무강세 모음 /o/는 강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차 약화, 2차 약화 위치에서 모두 길이만이 약화되는 양적 약화를 겪으며, (3b)의 모음 /e/ 역시 [i]로의 약화라는 질적 변화가 아닌 길이만이 짧아지는 양적 변화를 겪는다.¹¹⁾ 특히 (3b)에 제시된 모음 /e/의 경우는 구개음화 규칙의 미적용과 관련하여 더욱 두드러진다.¹²⁾ 따라서 현대 러시아어의 모음은 강세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4)	강세 음절	1차 약화	2차 약화

즉, 무강세 음절에서는 [a, i, u, ə] 음만이 발음되었던 표준 러시아어와는 달리¹³⁾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빈도수가 적기는 하지만 [e, o] 음을 포함한 [a,

- 11) (3b)에 제시된 단어들에서 모음 음소 /e/는 길이가 짧아지는 양적 변화 이외에 연모음이 경모음으로 변하는 질적 변화도 겪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어에서 경음성, 연음성은 모음의 자질이 아닌 자음의 자질이고, 모음의 경음성과 연음성은 선행 자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질적 변화는 모음 자체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 12) 구개음화란 자음과 전설 모음의 결합에서 자음이 연자음으로 발음되는 규칙으로 러시아어의 전통 규범에서는 생산적인 음운 규칙이다. 그러나 차용어의 증가로 인해 구개음화 규칙 역시 상당 부분 위반되고 있으며, 구개음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단어에서의 모음 약화 미발생도 특징적이다.
- 13) 물론 표준 러시아어에서도 радио, бутерброд 등과 같이 모음 약화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단어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현대 러시아어와 비교해 볼 때 그 수는 예외로 간주하거나 언급하지 않아도 좋을 정도의 극소수였고 특히 현대 러시아어에서 모음 음소 /e/의 모음 약화 미적용은 사전에도 언급될 정도로 비교적 생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 i, o, u, ə) 음이 모두 발음될 수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강세 음절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정도의 차이라는 분석 이외에 자음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영향이나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도 살펴야 한다. 특히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구개음화나 연자음 동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변화를 겪었던 자음의 발음이 점차 파괴됨으로써 자음 발음의 단순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음 발음 규칙의 세분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에서 자음 발음 규칙이 단순화되고 따라서 자음 간 대조성이 약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음 발음 규칙의 분절음 형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⁴⁾ 따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음 발음 규칙을 재설정하고, 다시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라는 관점에서 전체 단어의 발음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러시아어의 전반적인 모음 발음 규칙의 새로운 규범을 설정해야 한다.

3. 표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현상은 매우 생산적이고 규칙적인 발음 규칙으로 생성 음운론과 같은 규칙 기반 음운 이론부터 제약 기반 음운 이론인 최적성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학자들에 의해 분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음운적 분석의 주된 경향인 제약 기반 음운론을 바탕으로 모음 약화 현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은 크게 조음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인지적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구분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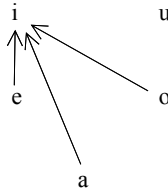
모음 약화 현상을 조음적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은 강세 없는 모음은 강세 모음보다 더 적은 노력을 들여 조음한다는 조음 노력의 경제성 원리와 자음과

14) 이것은 음절간의 변별성을 구분하는 역할이 자음 중심에서 조금씩 모음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음성적 대조 강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간주할 수 있다.

모음의 상호 관련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¹⁵⁾ 반면 인지적 측면에서의 분석은 모음 약화 현상은 인지적 대조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무강세 중위 모음은 주변 음들로 중화된다는 대조 강화(contrast-enhancing)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현저성 감소(prominence reduction)의 결과라는 것이다.¹⁶⁾

러시아어 자음의 구개음화 현상을 분석한 Rubach(2000)는 러시아어 자음과 모음은 [back]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통해 러시아어 모음 약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는 러시아어는 비(非)고위 모음에 영향을 주는 모음 약화 과정이 있고 그에 따라 연자음 두음을 갖는 음절에서 /e, o, a/는 [i]로 약화되고 그 밖의 위치에서는 [a]로 약화된다고 설명한다(Rubach 2000: 60).

(5) a. Ikanie (연자음 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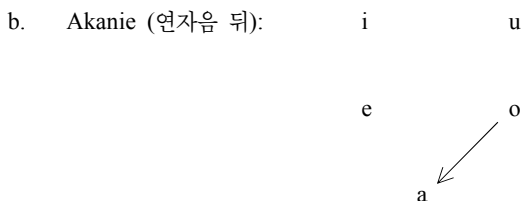
dél + o ‘문제’ ~ del + á [d’ílá] (pl.)

s’ól + a ‘마을들’ ~ s’ól + ó [s’íló] ‘마을’

p’át’ ‘5’ ~ p’at’ + órk + a [p’ít’órka] ‘5’ (coll.)

15) 비록 논문의 주제가 모음 약화가 아닌 구개음화라 하더라도 이러한 관점에서의 대표적 연구는 Rubach(2000)의 “Backness switch in Russian”이다.

16) 이 외에도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를 다루는 음운 모델은 공명도 기반 분석(Hermann 2008), 음성모듈과 음운 모듈을 구분함으로써 러시아어 모음 약화를 분석하는 Barnes(2007)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면 관계상 본 논문과 같은 근거의 조음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일견 상반되는 관점처럼 보이는 인지적 측면에서의 분석만을 소개하기로 한다.



dóm ‘집’ ~ domóv [dámóf] (gen.pl.)

kón’ ‘말’ ~ kon’ + á [kán’á] (gen.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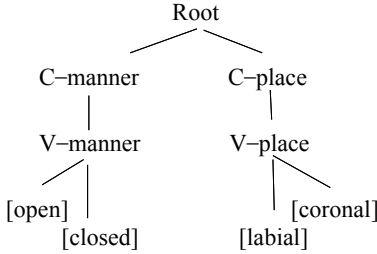
sól’ ‘소금’ ~ sol + í + t’ [sal’ít’] ‘소금을 뿌리다’

Rubach는 러시아어의 무강세 모음은 [i, a, u]의 세 주변모음으로 약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Ikanie는 후설성과 높이 면에서의 동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5a)에 제시된 것처럼 [+back, +high] 자질이 두음에서 모음으로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력형 자음의 연음성을 유지하라는 Id-C[-bk] 제약을 가장 높은 서열로 설정하여, 자음의 연음성, 즉 전설성이 후행 모음에 확산되는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를 통해 모음 약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¹⁷⁾

자질 격자를 사용하여 러시아어 모음 약화를 분석하는 Iosad(2012)는 경자음 뒤의 모음 약화와 연자음 뒤의 모음 약화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미명시 이론에 따라 경자음은 모음 장소 자질을 갖지 않는 반면 연자음은 V-place[coronal] 자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자음은 모음의 약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연자음만이 후행 모음의 약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17) 그러나 Rubach(2000) 연구의 주제는 자음의 구개음화이므로 모음 약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기술되어 있지 않다. 모음 약화의 동기나 유형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Ikanie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이 나와 있을 뿐이다.

(6) 러시아어 모음의 자질 격자(Iosad 2012: 537)



(7) 러시아어 모음의 자질 명시(Iosad 2012: 538)

Vowel	V-manner		V-place	
	[open]	[closed]	[labial]	[coronal]
/a/	√			
/o/		√		
/e/		√		√
/i/				√
/u/			√	

Iosad(2012)는 (6), (7)에 제시된 자질 격자와 모음 자질을 바탕으로 러시아어 모음 약화는 운율적 약위치, 즉 무강세 위치에서의 V-manner[closed] 금지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closed] 자질을 갖는 것은 중위 모음이기 때문에 이 금지 제약에 의해 러시아어 중위 모음 /e, o/는 무강세 위치에서 표면화될 수 없고 [closed] 자질을 갖지 않는 고위 모음 /i, u/와 저위 모음 /a/는 무강세 위치에서도 표면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8)과 같은 제약을 적용하여 러시아어 모음 약화를 설명한다.

(8) a. HaveManner: [manner] 자질을 가져야 한다.

*V-man[cl]: [closed] 자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Max(V-man[cl]): 입력형의 [closed] 자질은 출력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Dep(V-manner[open]): 출력형의 [open] 자질은 입력형에도 존재해야 한다.

b. HaveManner, *V-man[cl] » Max(V-man[cl]) » Dep(V-manner[open])

이러한 제약과 제약 서열을 사용하여 Iosad는 경자음 뒤에서의 모음 약화와 연자음 뒤에서의 모음 약화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Iosad 2012: 543).¹⁸⁾

(9) a.	t{V-man[cl]} /to/	Have Manner	*V-man[cl]	Max (V-man[cl])	Dep(V-manner[open])
a.	t{V-man[cl]} /to/		*!		
☞ b.	t{V-man[op]} /ta/			*	*
c.	{ }	/ /	*!	*	

b.	t{V-man[cl], V-pl[cor]} /te/	Max(V-man[cl]) _{hd}	*V-man[cl]	Max(V-man[cl])
a.	t{V-man[cl], V-pl[cor]} /te/		*!	
☞ b.	t{V-pl[cor]} /ti/			*

경자음 뒤의 모음 /o/는 무강세 위치에서 [a]로 발음된다. [closed] 자질을 갖는 모음은 표면화될 수 없다는 상위 제약 *V-man[cl] 때문이다. 후보형 (9c)의 { }는 아무 것도 발음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manner 자질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HaveManner 제약을 위반하게 된다. (9b)에서처럼 경자음 뒤 모음 /e/는 /ti/로 중화된다.¹⁹⁾ 첫 번째 후보형은 중위 모음을 금지하는 *V-man[cl]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²⁰⁾

18) Iosad(2012)에서는 강세 모음에 대해서, 그리고 무강세 위치에서의 /u, a/와 같은 다른 모음들의 발음 유형에 대해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

19) 음소 /ti/는 실제 발음으로는 [ty]가 될 것이다. 러시아어는 자음과 모음의 [back] 자질이 일치해야 하므로 경자음 뒤에서 전설 모음은 발음될 수 없기 때문이다.

20) Iosad는 (9a, b)와 같은 두 개의 후보형만을 제시하여 /te/ 결합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그는 연자음 뒤에서 /a, e, o/가 모두 [i]로 약화되는 현상 역시 동일한 제약과 서열을 사용하여 분석한다(Iosad 2012: 546).

(10) a.

$t^h\{V-man[op]\}$	/t ^h a/	*V-man[op] &*V-pl[cor]	Share (V-pl[cor])	Max (V-man[op])
a. $t^h\{V-man[op]\}$	/t ^h a/		*!	
b. $t^h\{V-pl[cor]_i\}$	/t ^h i/			*
c. $t^h\{V-pl[cor]_i, V-man[op]\}$	/t ^h ??/	*!		

b.

$t^h\{V-pl[cor]_2, V-man[cl]\}$	/t ^h e/	*V-man[cl]	Share(V-pl[cor])	Max (V-pl[cor])
a. $t^h\{V-pl[cor]_2, V-man[cl]\}$	/t ^h e/	*	*!	
b. $t^h\{V-pl[cor]_i\}$	/t ^h i/			*

c.

$t^h\{V-man[cl]\}$	/t ^h o/	*V-place[cor]& *V-man[op]	*V-man[cl]	Share(V-pl[cor])	Max (V-man[cl])
a. $t^h\{V-man[cl]\}$	/t ^h o/		*!	*	
b. $t^h\{V-pl[cor]_i\}$	/t ^h i/				*
c. $t^h\{V-pl[cor]_i, V-man[op]\}$	/t ^h ??/	*!			*
d. $t^h\{V-man[op]\}$	/t ^h a/			*!	*
e. $t^h\{V-man[cl]_i, V-pl[cor]_i\}$	/t ^h e/		*!		

Iosad는 연자음 뒤에서의 모음 약화를 설명하기 위해 다시 Share(V-pl[cor]) 제약과 연결 제약 *V-man[op]&*V-pl[cor]를 도입한다. Share(V-

그러나 다른 후보형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할 것이다. 모음 /a/의 경우 입력형의 [closed] 자질을 출력형에서도 유지하라는 Max(V-man[cl]) 제약과 입력형에 존재하지 않는 [open] 자질의 표면화를 금지하는 Dep(V-manner[open]) 제약을 모두 위반할 것이기 때문이다.

pl[cor]) 제약은 자음과 모음이 [coronal]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는 제약이며, *V-man[op]&*V-pl[cor] 제약은 [open] 자질과 [coronal] 자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음은 표면화될 수 없다는 제약이다. 이를 통해 (10a)에서처럼 연자음 뒤 모음 /a/는 자음과 모음이 [coronal] 자질을 공유함으로써 Share(V-pl[cor])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두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이 된다. (10b)에서 설명되는 연자음과 모음 /e/의 결합에서는 [closed] 자질을 갖는 모음을 금지하는 *V-man[cl] 제약과 [coronal] 자질의 공유를 요구하는 Share(V-pl[cor]) 제약을 모두 위반하지 않는 두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²¹⁾ 자음과 모음 /o/와의 결합을 설명하는 (10c)에서도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은 (b)의 후보형 [t'i]이다. [e]와 [o] 발음은 중위 모음이므로 *V-man[cl] 제약을 위반하고, [a] 발음은 자음의 [coronal] 자질을 공유하지 못함으로써 Share(V-pl[cor])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Iosad의 분석은 경자음 뒤와 연자음 뒤에서의 모음 약화 현상을 자질을 이용한 동일한 제약열을 사용하여 체계적으로 있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약화 모음 [ə]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²²⁾ 실제 음성적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이론적 분석에 가깝다. 또한 1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질적 모음 약화가 발생하지 않는 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현대 러시아어의 발음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양한 음성적 관점에서의 모음 약화 분석 중 러시아어 모음 약화 현상을 인지적 측면에서 다룬 대표적인 예로는 Padgett(2004), Crosswhite(2000)

-
- 21) Iosad의 실제 분석에서는 제약들 간의 서열을 결정하기 위해 /e/와 /i/ 모음이 결합하는 후보형이 하나씩 더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하나씩의 후보형만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논문에 제시된 형태에 따라 분석표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다.
- 22) Iosad는 [ə]를 자질 없는 모음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ə]로의 약화를 허용한다면 Iosad의 분석에서도 1차 약화, 2차 약화를 구분해야 하고, 그에 따른 제약 서열의 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Iosad는 기본적으로 [ə]는 음운적 약화음이 아니라 모음 약화의 결과 감소된 길이의 가공물이라고 설명한다(Iosad 2012: 531-533)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에서 Padgett(2004)은 산포이론(Dispersion Theory)²³⁾를 이용하여 모음 약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는 음성적 근거에 바탕을 둔 산포 이론을 사용하여 단모음 [e, a, o]에 대한 조음적 제한과 Space와 같은 인지 제약의 결합인 유표성 제약과 특정 자질에 대한 충실성 제약을 사용하여 모음 약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분석은 1차 약화의 간단한 예 들은 (11)과 같이 충실성 제약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연자음 뒤에서 /u/를 제외한 모든 모음의 [i]로의 중화나 2차 약화인 [ə]로의 약화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Padgett 2004: 92).

(11) a.	/tsena/ ‘price’	Ident(bk)	Ident(hi)	Ident(rd)
a.	ts ^ɨ iná		*	
b.	tsuná	*!	*	*
c.	tsəná	*!		

b.	/voda/ ‘water’	Ident(bk)	Ident(hi)	Ident(rd)
a.	v ⁱ idá	*!	*	*
b.	vudá		*!	
c.	vədá			*

Padgett은 입력형과 출력형의 자질을 유지하라는 충실성 제약인 Ident 제약을 사용하여 1차 약화로 구분할 수 있는 모음 /e/의 [i]로의 중화와 모음 /o/의 [a]로의 중화를 분석하고 있다.²⁴⁾ 즉 각각 입력형과 출력형의 [back]

23) 산포이론은 Flemming이 제안한 음운 이론으로 이 이론의 기본 개념은 소리의 발생에서는 가능한 소리들의 대조(contrast)에 관련된 조음, 음향, 청음적 제약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데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출력형은 이 충돌관계를 적절히 해결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이 이론은 출력형을 결정하는 주요 원칙으로 1. 대조 수의 최대화, 2. 대조 명료성의 최대화, 3. 조음 노력의 최소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 (안상철 2003: 317-318).

24) Padgett의 분석에서는 무강세 위치에서 발음되는 [a](Padgett의 표기에서는 [ɐ])

자질, [high] 자질, [round] 자질이 일치하는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Padgett은 연자음 뒤 모음 /a, o/의 [i]로의 중화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유로 역사적 이유²⁵⁾와 음성적 실험 자료를 근거로 이러한 발음 변화는 음운적 변화가 아닌 음성적 이행의 문제이거나 음운적 불투명성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강세 바로 앞 음절이나 어두 음절의 무강세 위치와 그 외 무강세 위치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발음되는 음성적 길이에 대해 음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Crosswhite(2000)는 특정 위치에서 특정 자질을 허락하는 인허 제약(License constraint)을 사용하여 인지적 측면에서의 러시아어 모음 약화를 설명한다. 즉, Crosswhite 가 사용하는 인허제약 Lic-Noncorner/Stress는 강세 위치에서 비주변적 음들이 허용된다는 것으로 러시아어의 비주변적 모음 /e, o/는 강세를 받지 않을 때는 유표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그녀는 (12)와 같이 자질 유지를 요구하는 충실성 제약인 Max 제약과 그들간의 서열을 사용하여 모음 약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 (12) Max[+front]: 입력형의 [+front] 자질은 출력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Max[-high]: 입력형의 [-high] 자질은 출력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Max[round]: 입력형의 [+round] 자질은 출력형에서도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Crosswhite에 따르면 러시아어 모음 약화 현상을 분석하는 제약 서열은 Lic-Noncorner/Stress ≫ Max[+front] ≫ Max[-high] ≫ Max[round]가 된다. 그리고 이 제약 서열을 사용하여 Crosswhite는 (13)에 제시된 것과

와 [ɐ]를 구분하지 않고 중설화된 하나의 모음 [ə]로 취급한다.

25) Padgett(2004)은 이에 대한 역사적 근거로 불과 100여 년 전까지도 모음 /a, o/는 연자음과 경자음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ə](Padgett 표기에서의)로 발음되었다고 설명한다.

같은 모음 음소 /o/의 [a]로의 약화와 음소 /e/의 [i]로의 약화를 분석하고 있다 (Crosswhite 2000: 12-13).

(13) a.

	/to'ta/ 'hypothetical word'	Lic- Noncorner	Max[+front]	Max[- high]	Max[round]
☞ a.	[ta'ta]				*
b.	[tu'ta]			*!	
c.	[to'ta]	*!			

b.

	/teta/ 'hypothetical word'	Lic- Noncorner	Max[+fron t]	Max[- high]	Max[round]
☞ a.	[ti'ta]			*	
b.	[ta'ta]		*!		
c.	[te'ta]	*!			

Crosswhite는 입력형과 출력형의 자질 대응을 요구하는 Max 제약군보다 상위 서열에 위치에 따른 인허 제약인 Lic-Noncorner 제약을 가장 상위 제약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13a)에 제시된 /o/의 [a]로의 중화와 *(13b)의 /e/의 [i]로의 중화는 각각 Lic-Noncorner와 Max[-high] 제약, Lic-Noncorner과 Max[+front] 제약을 위반하지 않는 후보형이 올바른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Crosswhite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제약열을 사용하여 러시아어 모음 약화에 대한 음운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²⁶⁾ 그러나 Crosswhite(2000)는 기존의 분석들과 마찬가지로 [a]와 [ɔ]의 음운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모음 약화의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러시아어의 다양한 모음 약화 현상을 포괄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표준 러시아어에 대한 기존의 음운

26) 비록 Crosswhite(2000)는 음성적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음 약화의 동기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음운적 제약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Iosad와 같은 학자들은 순수한 음성적 동기가 아닌 위치 관련 인허 제약의 예를 들어 비음운적 요소를 도입한 음운 이론이라 칭하고 있다.

적·음성적 분석은 다양한 관점에서 표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는 있지만, 본 논문의 주요 관심 대상인 모음 약화 발생 환경에서의 모음 약화 규칙의 미적용 문제는 전혀 다루지 못하고 있다. 4절에서는 기존의 최적성 이론 방법을 토대로 현대 러시아어의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음 약화 미적용 어휘들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시도해 본다.

4. 현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현상

3장에서 제시된 것처럼 최적성 이론 체계 내에서 다양한 학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들은 주로 러시아어의 비주변적 위치의 모음은 무강세 위치에서 발음될 수 없고 무강세 위치에서는 주변 모음인 /i, a, u/만이 발음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리고 비주변적 위치의 모음이 무강세 위치에서 모음의 성질은 변화하더라도 그 [back] 자질과 [high] 자질은 유지해야 한다는 충실성 제약이 지배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비주변적 중위 모음 /e/는 [-back] 자질이 동일한 모음 [i]로 중화되고 후설모음 /o/는 [+back, -high] 자질이 동일한 주변 모음 [a]로 중화된다는 것이다.²⁷⁾ 이러한 설명은 러시아어의 모음 약화 현상을 간단하고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a] 모음으로의 중화와 [ɔ] 모음으로의 중화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현대 러시아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음 발음 규칙의 변화인 모음 약화의 미적용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체계에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즉,

27) 모음 /a/의 자질을 [+back]으로 보는지 [-back]으로 보느냐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back] 자질과 [front] 자질을 모두 사용하는 자질 이론에서는 모음 /a/의 자질을 [-back, -front]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back] 자질만을 사용하는 이분법적 자질 명시 이론에서는 모음 /a/의 자질을 [+back]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따라 모음 /a/의 자질을 [+back]으로 간주한다.

(3)에 제시된 단어들에 이러한 제약 체계를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은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다.

(14) a.

	/kakáo/	Lic-Noncorner	Max[+front]	Max[-high]	Max[round]
☞	a. [kakaə]				*
	b. [kacao]	*!			
☞	c. [kakaa]				*

b.

	/buterbrod/	Lic-Noncorner	Max[+front]	Max[-high]	Max[round]
☞	a. [bütirbrót]			*	
	b. [būtarbrót]		*!		
	c. [büte'rbrót]	*!			
	d. [büterbrót]	*!	*		

Crosswhite(2000)의 제약을 (14)의 어휘들에 적용시키면, (14a)에서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후보형이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비주변적 모음인 /o/는 무강세 위치에서 유효되지 않는다는 최상위 인허 제약에 의해 실제 발음형인 두 번째 후보는 선택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Crosswhite(2000)는 [ə]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음으로써 어말 위치의 무강세 모음 /o/와 어두나 강세 앞 첫 음절의 무강세 모음 /o/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14)의 'kacao'의 출력형은 [kakaə]와 [kakaa]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14b)에서도 Crosswhite의 제약과 그 서열은 연모음 /e/가 [i]로 약화되지 않고 경모음 [ɛ]로 발음되는 다수의 외래어 발음을 분석하지 못함으로써 첫 번째 후보 [bütirbrót]를 최종 출력형으로 선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휘들에 Iosad(2012)나 Padgett(2004)의 제약 서열을 적용해도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없다.²⁸⁾

(15) a.

/kakáo/	HaveManner	*V-man[cl]	Max(V-man[cl])	Dep(V-manner[open])
a. [kakaə]	*!		*	
b. [kacao]		*!		
☞ c. [kakaa]			*	

b.

/buterbrod/	HaveManner	*V-man[cl]	Max(V-man[cl])	Share(V-pl[cor])
☞ a. [büt'irbrót]			*	
b. [büt'arbrót]			*	*!
c. [büt'erbrót]		*!		
d. [büterbrót]		*!		*

(16) a.

/kakáo/	Ident(bk)	Ident(hi)	Ident(rd)
a. [kakaə]			*
(?) ☞ b. [kacao]			
c. [kakaa]			*

b.

/buterbrod/	Ident(bk)	Ident(hi)	Ident(rd)
a. [bütirbrót]		*!	
b. [bütarbrót]	*!		
☞ c. [büte'rbrót]			
d. [büterbrót]	*!		

28) 물론 그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무강세 위치에서는 /a, i, u/의 주변적인 음들만 발음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무강세 위치에서의 [ə]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후보형에 모음 [o, ɛ]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Iosad(2012)의 제약 서열을 제공한 (15a, b)의 분석은 각각 세 번째와 첫 번째 후보형이 출력형으로 선택된다. (15a)에서 첫 번째 후보형은 [ə]가 아무런 자질도 가지지 않는 음이므로 HaveManner 제약을 위반하고, 두 번째 후보형은 [closed]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모음 /e, o/는 유효될 수 없다는 *V-man[cl] 제약을 위반하기 때문이다. (15b)에서도 실제 발음형인 [büterbrót]는 *V-man[cl] 제약을 위반하므로 출력형으로 선택되지 못한다.

Padgett(2004)의 제약을 적용한 (16)에서는 (a)는 올바른 형태가 선택되는 반면, (b)에서는 잘못된 세 번째 후보형이 최종 출력형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또한 올바른 출력형이 선택된 (16a)에서도 Padgett의 분석을 수정 없이 받아들인다면 러시아어 대다수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a]나 [ɔ]로의 모음 약화를 설명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적인 제약들 이외에 모음 약화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 차용어들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약들이 필요하며, 이것은 모음 약화 현상을 단순한 강세 음절과의 거리가 아닌 주변 자음이나 해당 어휘의 형태적 특징을 고려하여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먼저 /boa/, /kako/, /radio/와 같이 무강세 위치에서 모음 약화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자. 대부분이 차용어인 이러한 어휘들은 불변 명사라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적 특징을 갖는 어휘들에서는 모음 약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다음과 같은 제약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제약은 해당 어휘에 있어서 위반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서열이 된다. 또한 [a]와 [ɔ]로의 약화를 구분하기 위해 어두 위치와 강세 바로 앞 위치에서는 [a]가 발음될 수 없다는 하위 서열 제약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a]와 [ɔ]를 구분지을 수 있는 유일한 자질인 [low] 자질의 도입이 필요하다.

- (17) a. Max-Noncorner/UndecLex - 불변 명사에서는 비주변적 모음을 유지해야 한다.

- b. Lic[-low]/Wordfinal (Lic[-low]/WF) - 어말 위치에서는 [-low] 자질의 모음이 허용된다.
- c. Lic[+low]/Wordbeg. - 어두 위치에서는 [+low] 자질의 모음이 허용된다.
- d. Lic[+low]/Prestress - 강세 앞 음절에서는 [+low] 자질의 모음이 허용된다.

(17b) - (17d)의 제약은 [a]와 [ə]의 음색을 구분하는 하위 서열이다. 이제 이러한 제약을 (14) - (16)의 첫 번째 분석인 /kakao/에 적용시켜 보자.²⁹⁾

(18) a.

	/kakáo/	Max-noncorner/UndecLex	Lic-Noncorner	Max[-high]	Max[round]
a.	[kakaə]	*!			*!
b.	[kakao]		*		
c.	[kakaɑ]	*!			*!

b.

	/vodá/	Lic-Noncorner	Max[-high]	Max[round]	Lic[-low]/WF	Lic[+low]/Wordbeg	Lic[+low]/Prestress
a.	[vɔda]			*			*!
b.	[vada]			*			
c.	[voda]	*!					*

(18a)의 분석에서 /kakao/는 불변 명사이므로 최상위 제약 Max-noncorner/UndecLex를 위반하지 않고 [round] 자질을 유지하는 두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반면 러시아어 고유의 어휘 /voda/의 발음은 강세 앞 음절에서 모음 [a]가 발음될 것을 요구하는 Lic[+low]/Prestress 제약

29) 지면 관계상 본 논문에서는 해당 분석에 필요한 제약만을 보여주며, 불필요한 제약은 생략한다.

에 의해 [vada]가 되고 첫 번째 후보형인 [vada]는 이 위치 제약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한다.

이제 모음 약화를 일으키지 않는 /e/의 경우를 살펴보자. 이러한 어휘 역시 대부분이 차용어이지만, 많은 경우 러시아어에 일부 동화되어 형태적으로 격변화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어휘들에서는 형태적 특성이 아닌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가 중요하게 된다.

- (19) a. IdentC[back] - 입력형과 출력형 자음의 [back] 자질은 일치해야 한다.
- b. ShareCV[back] - 자음과 모음은 [back] 자질을 공유해야 한다.

이 때 자음의 [back] 자질은 어휘적으로 정해진 고유 자질이며, 이에 따라 모음의 [back] 자질이 결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분석이 이루어진다.

(20) a.

/buterbrod/	IdentC [back]	Share CV [back]	Lic- Non- corner	Max [+front]	Max [round]	Lic-[- low]/WF
a. [büt'irbrót]	*!					
b. [bütirbrót]		*!				
c. [büt'erbrót]	*!		*			
☞ d. [büterbrót]			*			

b.

/vesná/	IdentC [back]	Share CV [back]	Lic- Non- corner	Max [-high]	Max [round]	Lic-[- low]/WF
☞ a. [v'isna]				*		
b. [visna]	*!	*		*		
c. [v'esna]			*!			
d. [vesna]	*!		*			

(20a)의 /buterbrod/는 무강세 모음 /e/가 [i]로 약화되지 않고 경모음 [ɛ]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모음 앞의 자음 /t/가 어휘적으로 경자음이므로 자음의 [back] 자질을 유지하고, 그 [back] 자질과 후행 모음의 [back] 자질을 일치시키려는 상위 제약 IdentC[back]과 ShareCV[back] 제약에 의해 다른 후보형들이 모두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b)의 경우는 자음 /v/가 어휘적으로 연자음이므로 자음의 [-back] 자질을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와 세 번째 후보형이 경쟁하게 되고, 다시 무강세 위치에서의 중위 모음의 유표를 금지하는 Lic-Noncorner 제약에 의해 첫 번째 후보형이 최적형으로 선택되는 것이다. 이처럼 현대 러시아어에서 나타나는, 모음 약화 현상을 포함한 모음의 발음은 (17)과 (19)에 제시된 제약들로 효과적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그 서열은 다음과 같다.

(21) IdentC[back] » ShareCV[back] » Max-noncorner/UndecLex, Lic
-Noncorner » Max
[-high] » Max [round] » Lic[-low]/Wordfinal, Lic[+low]/
Wordbeg, Lic[+low]/Prestress

/o/ 모음의 [a]나 [ɔ]로의 약화, /e/ 모음의 [i]로의 약화가 전형적인 발음 규칙이었던 표준 러시아어와 달리 수많은 차용어의 유입과 함께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그러한 모음 약화 현상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강세 모음과의 위치나 모음 자체의 자질만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형태적 특성이나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를 통해 살펴보아야 하며, 본 논문에서는 이를 위해 ShareCV[back]와 같은 자음과 모음의 연관성을 요구하는 제약과 Max-noncorner/UndecLex와 같은 형태적 제약을 도입하였다. 또한 [a]와 [ɔ]의 차이는 단순한 음성적 차이이므로 음운론적 분석에서는 다를 필요가 없다는 기존의 입장과 달리 어휘 내에서의 위치에 따른 제약 Lic[-low]/Wordfinal, Lic[+low]/Wordbeg, Lic[+low]/

Prestress를 사용함으로써 강세가 없는 모음의 실제 발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모음 약화는 러시아어 음운론의 대표적인 발음 규범으로 오랫동안 안정되게 적용되어 왔다. 무강세 위치에서 모음 /e/는 [i]로 약화되고, 모음 /o/는 위치에 따라 [a]나 [ɔ]로 약화되며 연자음 뒤에서는 /u/를 제외한 모든 모음은 [i]로 약화된다는 생성 문법적 설명 이후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론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대부분은 무강세 위치에서는 중위 모음 /e, o/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중화 규칙으로서의 모음 약화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차용어의 유입으로 인해 러시아어 발음 규범은 많은 면에서 변화를 겪게 되고, 무강세 위치에서도 [e, o] 음을 포함한 [a, e, i, o, u, ə] 음이 모두 발음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현대 러시아어에서는 구개음화나 연자음 동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더 복잡한 변화를 겪었던 자음의 발음 규범이 점차 파괴됨으로써 자음 발음의 단순화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음 발음 규칙의 세분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에서 자음 발음 규칙이 단순화되고 따라서 자음 간 대조성이 약화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모음 발음 규칙의 분절음 형태 의존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강제 음절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정도의 차이라는 분석 이외에 자음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영향이나 어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적 특성도 살펴야 한다. 불변 명사라는 형태 범주와 연관된 인허 제약 Max-noncomer/UndecLex과 자음의 고유한 자질인 연자음성과 관련된 충실성 제약과 공유 제약 IdentC[back], ShareCV[back]의 도입은 러시아어 모음 발음

규칙을 모음만의 발음 규칙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살펴볼
아야 함을 보여준다.



안상철, 『최적성 이론의 언어분석』, 한국문화사, 2003.

BARNES, Jonathan, *Vowel Reduction in Russian: The Categorical and the Gradient*, LSA Annual Meeting. Boston. MA, 2004.

BARNES, Jonathan, *Phonetics and phonology in Russian unstressed vowel reduction: a study in hyperarticulation*, MS., Boston University, 2007.

BERRETTA, Camilla, *Studies of vowel reduction in Russian*, Linguistics Senior Thesis, 2003.

BETHIN, Christina Y., *Paradigm Uniformity and Contrast in Russian Vowel Reduction*.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0-2, 425-463, 2012.

CROSSWHITE, Katherine M., *Vowel reduction in Russian: a unified account of standard, dialectal, and “dissimilative” patterns*. In Catherine M. Crosswhite & Joyce McDonough (eds.), *University of Rochester working papers in the language sciences*, vol. Spring 2000, 107-171, 2000.

CROSSWHITE, Katherine M., *The Analysis of Extreme Vowel Reduction*. *UCLA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4, 2000.

CROSSWHITE, Katherine M., *Vowel reduction in Optimality Theory*. London, New York: Routledge, 2001.

FLEMMING, Edward. *A Phonetically-Based Model of Phonological Vowel Reduction*, 2005.

HERMANS, Ben, *Russian vowel reduction with elements and without ease of*

- perception*, In Gerhild Zybatow, Luka Szucsich, Uwe Junghanns & Ronald Meyer(eds.), *Formal description of Slavic languages: the fifth conference (Linguistik International 20)*, Frankfurt am Main: Peter Lang Verlag, 2008.
- IOSAD, Pavel, *Vowel reduction in Russian: no phonetics in phonology*. *Journal of Linguistics*, 48(3). 521-571, 2012.
- KERTÉCZ Zsuzsa, *Approaches to the phonological analysis of loanword adaptation*. *The Even Yearbook 7*. Department of English Linguistics, Eötvös Lónánd University, Budapest, 2006.
- MOŁSZANOW, Janina, *Russian vowel reduction and phonological opacity*. *Slavonic and East European Review* 85(2). 201-230, 2007.
- PADGETT, Jaye & TABAIN Marija, *Adaptive Dispersion Theory and Phonological Vowel Reduction in Russian*, *Phonetica* 62, 14-54, 2005.
- PADGETT, Jaye, *Russian vowel reduction and Dispersion Theory*. *Phonological Studies* 7. 81-96, 2004.
- RUBACH, Jerzy, *Backness switch in Russian*. *Phonology* 17. 39-64, 2000.
- JABORSKI, Sylwester, *Phonetic and phonological vowel reduction in Russian*. *Poznán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46(1). 51-68, 2010.
- БЕЛОШАПКОВА, В.А., *Современный Русский язык*. Москва, 1989.

❖ ABSTRACT

Vowel Reduction in Russian

Lee, Sungmin

For a long period, vowel reduction has been accepted as one of the most common pronunciation rules in Russian phonology. However, since the rules have been modified in many ways after the influx of loanwords, [a, e, i, o, u, ★]—including [e, o]—can now be pronounced in unstressed position, obeying the rule of vowel reduction. Especially in Modern Russian, along with the destruction of the consonant pronunciation norm due to some relatively complex changes it underwent palatalization, consonant pronunciation has been simplified, and as a response to such a phenomenon, the specialization of vowel pronunciation rule is now occurring. In other words, in the interrelation between consonants and vowels, as the pronunciation rules for consonants are simplified and thus the contrast between consonants is weakened, the degree of dependence on pronunciation of segment in the vowel pronunciation rule has been elevated.

Therefore, the analysis says that the degree of vowel reduction depends on a vowel's distance from a stressed syllable is not enough; the influence of surrounding phonemes—including consonants—or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words themselves should also be considered.

The introduction of Max-noncorner/UnderLex, a/an Licence constraint that is related to non-declension nouns, and that of IdentC[back] and ShareCV[back], which are faithfulness constraint and share constraint respectively that are related to the nature of consonants stresses that vowel pronunciation rules should not be simply viewed as rules for vowels; The rules should be analyzed with emphasis on their correlation with surrounding phonemes.

Key Words

현대 러시아어, 모음 약화, 자-모음 상관관계, 형태적 특징, 최적성이론

Modern Russian, Vowel reduction, interrelation between consonants and vowels,

Morphological features, Optimality theory

: 2013. 02. 02.

: 2013. 03. 10.

: 2013. 03. 15.